변형문제 유형편 — 흐름

모의고사

고2 · 영어영역

문제편

수록 유형

글의 순서 10문항

문장 삽입 10문항

무관한 문장 17문항

글의 순서

25년 9월 고2 21번

1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Mirror neurons are the hardware of empathy, and so what would make more sense than to look and see which animals possess these cells?

(A) Scientists often publicly speculate that we can probably expect surprises here, too. They assume that all animals that live in herds or large groups possess similar brain mechanisms, because social units function only if individuals can see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in the group and feel what they are feeling.

(B) I can see a goldfish waving its fin at us. As an animal that travels around in a tightly-knit group, it's on board with this idea— or at least swimming alongside the boat.

(C) And this is exactly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s: all researchers know so far is that apes possess mirror neurons. We still need to test to see which other species are like us in this respect.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5년 9월 고2 20번

2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Tactics" is a term drawn from military usage.

(A) In response, we must develop tactics for dealing with time and waiting. These aren't tactics to eliminate waiting; instead, these are tactics for teaching us how to learn from the seams.

(B) Strategies are plans of action directing a military force when attacking another, and tactics are responses to conditions on the ground. In this vein, time is imposed on us by our cultures, by the technologies that have regimented time down to the nanosecond, and by its own finite nature and the fact that we're going to live only so long.

(C) These tactics have the potential to reorient us in profound ways, transforming our perspectives on our wait times. Such renewed perspectives transform waiting from a burden to a springboard toward things like creativity, social critique, or reflection on our inner state and the state of our relationships.

*regiment: 조직화하다 ** seam: 이음매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5년 9월 고2 24번

3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thing in the world exists on a continuum, whether in speed, size, or any other possible descriptor you could think of.

(A) We don't have to be statisticians to know there is not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69 and 70. Yet once the person with the lower score is labeled "cognitively impaired," his or her life will unfold differently than the person with a one-point advantage.

(B) I call this resulting damage "the borderline effect." The examples are endless. Someone's IQ is 69 and someone else's is 70 —but only the score of 70 is deemed to be within the range of normal.

(C) Still, we create and mindlessly adopt sharp distinctions, and those distinctions change lives far more dramatically than marginal differences ever do. Indeed, all differences are arbitrary, but drawing hard lines between categories hides this arbitrariness and can be severely damaging.

* arbitrary: 자의(恣意) 적인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25년 9월 고2 30번

4 글의 순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lthough empathy is widely praised by scholars and public figures,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A) Empathy, they argue, can further encourage conflict and force us into an us vs. them mentality. Finally, even when we try to empathize with others who are dissimilar from us or in unfamiliar contexts, sometimes we are unable to accurately empathize with their experiences, causing further misunderstandings and frustration.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we should give up on empathy and employ other tools in pursuit of social harmony, e.g., rational compassion or moral emotions like fear, anger, and shame.

(B) Critics of empathy argue that empathy will not save us from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conflict. In fact, they argue, empathy makes such conflicts worse.

(C) These critics maintain that empathy can be exhausting and lead to burnout or insensitivity to suffering. They argue that we tend to empathize strongly with our in-group and resist empathizing with out-groups, and even enjoy the suffering of out-groups in competitive or threatening contexts. Thus, the prescription for more empathy is often ineffective in cases of conflict.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변형문제 유형편 — 흐름

모의고사

고2 · 영어영역

정답/해설편

정답 한눈에 보기

1 ④	2 ②	3 ⑤	4 ③	5 ①	6 ④	7 ①	8 ⑤	9 ②	10 ③
11 ⑤	12 ③	13 ④	14 ②	15 ①	16 ⑤	17 ①	18 ③	19 ②	20 ⑤
21 ④	22 ①	23 ②	24 ③	25 ④	26 ③	27 ②	28 ④	29 ⑤	30 ①
31 ①	32 ②	33 ①	34 ②	35 ③	36 ⑤	37 ④			

1 글의 순서

정답 ④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거울 뉴런이 공감의 하드웨어이니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가졌는지 보자는 물음을 던진다. (C)의 And this is exactly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s 가 그 물음을 받아 「지금은 유인원만 확인됐고 다른 종은 더 시험해야 한다」고 답한다. (A)의 surprises here, too 가 그 「다른 종」 문제에 대한 과학자들의 추측을 말하고 They assume 로 무리 동물의 뇌 구조를 근거로 들면, (B)의 금붕어(it's on board with this idea)가 그 생각에 맞장구치는 장면으로 맺는다 — 물음 → 현황 → 추측 → 예.

선지 분석

① **지시어 단서** — (A)의 surprises here, too 의 here 는 「다른 종을 더 시험해야 한다」는 문제를 가리킨다 — 그 문제는 (C)에 있어 (A)가 먼저 올 수 없다

② **지시어 단서** — (B)가 맨 앞이면 it's on board with this idea 의 this idea 가 가리킬 생각이 없다 — 무리 동물에 관한 가정은 (A)에 있다

③ **지시어 단서** — (B)의 this idea 는 (A)의 They assume … 를 가리키므로 (A)보다 앞설 수 없다

④ **정답**

⑤ **지시어 단서** — (C) 뒤에 (B)가 오면 금붕어가 맞장구칠 this idea 가 아직 없다 — 「무리 동물도 비슷한 뇌 구조를 가졌을 것」이라는 가정은 (A)에서 나온다

전문 해석

거울 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이므로, 어떤 동물들이 이 세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보다 더 이치에 맞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대 연구가 현재 서 있는 지점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아는 것은 유인원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다른 어떤 종들이 이 점에서 우리와 비슷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전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흔히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아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들은 떼나 큰 집단을 이루어 사는 모든 동물들이 비슷한 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사회적 단위는 개체들이 집단 내 다른 개체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에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금붕어 한 마리가 우리에게 지느러미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긴밀하게 결속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동물로서, 그것은 이 생각에 동참하고 있다 — 또는 적어도 그 배 옆에서 함께 헤엄치고 있다.

2 글의 순서

정답 ②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tactics 가 군사 용어에서 왔다는 것만 말한다. (B)가 전략(strategies)과 전술(tactics)을 갈라 「전술 = 현장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정의하고, In this vein 으로 시간이 문화 · 기술 · 유한성 때문에 우리에게 부과된다는 「상황」을 내놓는다. (A)의 In response 가 그 부과된 시간에 맞설 전술을 말하고 「기다림을 없애는 전술이 아니라 이음매에서 배우는 전술」로 성격을 밝히면, (C)의 These tactics 가 그 효과(기다림에 대한 관점 전환)를 말하고 Such renewed perspectives 로 맺는다 — 정의 → 상황 → 대응 → 효과.

선지 분석

① **연결어 단서** — (A)의 In response 는 대응할 상황이 앞에 있어야 한다 — 주어진 글에는 「부과된 시간」이 없고, 그것은 (B)에 있다

② **정답**

③ **지시어 단서** — (C)의 These tactics … our perspectives on our wait times 는 「기다림에 대처하는 전술」이 먼저 나와야 가리킬 것이 생긴다 — waiting 은 (A)에서 처음 나온다

④ **지시어 단서** — (C)가 맨 앞이면 These tactics 가 가리킬 「기다림 대처 전술」이 없고, 전술의 정의((B))가 효과보다 뒤로 밀린다

⑤ **지시어 단서** — (C)가 맨 앞이면 관점 전환(효과)이 전술의 정의 · 대응보다 먼저 나온다 · (A)의 In response 가 (B) 뒤에 오는 것은 맞지만 (C)가 그 앞에 설 수 없다

전문 해석

「전술」은 군사적 용법에서 따온 용어이다. 전략은 한 군대가 다른 군대를 공격할 때 그 군대를 지휘하는 행동 계획이고, 전술은 현장의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은 우리의 문화에 의해, 시간을 나노초 단위까지 엄격히 통제해 온 기술에 의해, 그리고 그것 자체의 유한한 본질과 우리가 단지 그렇게 오래만 살 것이라는 사실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기 위한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들은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오히려 틈새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전술이다. 이 전술들은 우리를 심오한 방식으로 재정립하여,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새로워진 관점은 기다림을 부담에서 창의성, 사회 비평, 또는 우리의 내면 상태와 우리 관계의 상태에 대한 성찰 같은 것들을 향한 도약대로 변화시킨다.

3 글의 순서

정답 ⑤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세상 모든 것이 연속선 위에 있다고 말한다. (C)의 Still 이 「그런데도 우리는 날카로운 구분을 만든다」로 방향을 틀고 경계를 긋는 것이 severely damaging 하다고 한다. (B)의 this resulting damage 가 그 해를 받아 「경계선 효과」라고 이름 붙이고 IQ 69 · 70 의 예를 꺼내면, (A)의 between 69 and 70 이 그 예를 받아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데도 낙인 하나로 삶이 달라진다」로 맺는다 — 연속선 → 구분의 해 → 이름 · 예 → 결과.

선지 분석

① **지시어 단서** — (A)의 between 69 and 70 은 IQ 69 · 70 의 예가 먼저 나와야 가리킬 것이 생긴다 — 그 예는 (B)에 있다

② **지시어 단서** — (B)가 맨 앞이면 this resulting damage 가 가리킬 해가 없다 — 「경계 긋기의 해」는 (C)에 있다

③ **지시어 단서** — (B)의 this resulting damage 는 (C)의 can be severely damaging 뒤에 와야 한다 · (C)의 Still 은 주어진 글의 연속선과 맞서야 하므로 바로 뒤에 온다

④ **지시어 단서** — (C) 뒤에 (A)가 오면 69 and 70 이 가리킬 점수가 아직 없다 — IQ 예는 (B)에서 나온다

⑤ **정답**

전문 해석

세상의 모든 것은 속도에서든, 크기에서든, 또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가능한 묘사어에서든 연속체 위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확한 구분을 만들어 내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며, 그러한 구분은 미미한 차이가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삶을 바꾼다. 사실, 모든 차이는 임의적이지만, 범주들 사이에 엄격한 선을 긋는 것은 이 임의성을 숨기며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겨나는 피해를 「경계선 효과」라고 부른다. 그 예는 끝이 없다. 어떤 사람의 IQ는 69이고 다른 사람의 IQ는 70인데 — 70이라는 점수만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69와 70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 통계학자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단 더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인지 장애가 있다」고 낙인찍히면, 그 사람의 삶은 1점의 이점을 가진 사람과는 다르게 펼쳐질 것이다.

4 글의 순서

정답 ③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공감이 칭송받지만 모두가 공감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B)의 Critics of empathy 가 그 반대자들을 처음 소개해 「공감은 갈등에서 구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한다. (C)의 These critics 가 그들을 받아 소진 · 내집단 편향을 근거로 들고 Thus 로 「갈등에서 공감 처방은 흔히 효과가 없다」고 정리하면, (A)가 「공감은 갈등을 더 부추긴다」에 이어 Finally 로 마지막 근거를 대고 「공감을 버리고 다른 도구를 쓰자」로 맺는다 — 소개 → 주장 → 근거 · 정리 → 마지막 근거 · 결론. 원문 정정(추정): ③ efficient → ineffective

선지 분석

① **지시어 단서** — (A)의 they argue 의 they 가 가리킬 비판자가 없다 — Critics of empathy 는 (B)에서 처음 소개된다 · Finally 가 맨 앞에 올 수도 없다

② **연결어 단서** — (A)의 Finally 는 근거를 늘어놓는 맨 끝에 온다 — (A) 뒤에 (C)의 근거와 Thus 정리가 또 오면 Finally 가 마지막이 아니게 된다

③ **정답**

④ **지시어 단서** — (C)의 These critics 는 비판자가 먼저 소개돼야 가리킬 수 있다 — 주어진 글은 not everyone is an empathy booster 라고만 할 뿐 critics 는 (B)에 있다

⑤ **지시어 단서** — (C)가 맨 앞이면 These critics 가 가리킬 대상이 없고, (B)의 Critics of empathy 가 뒤늦게 처음 소개되는 꼴이 된다

전문 해석

공감이 학자들과 공적 인물들에 의해 널리 칭찬받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에 대한 비판자들은 공감이 개인 간 및 집단 간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들은 공감이 그러한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비판자들은 공감이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으며 극도의 피로나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내집단에는 강하게 공감하고 외집단에는 공감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맥락에서는 심지어 외집단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더 많은 공감이라는 처방은 갈등의 경우에 흔히 효과가 없다. 그들은 공감이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우리를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와 다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맥락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할 때조차, 때때로 우리는 그들의 경험에 정확하게 공감하지 못하여, 더 많은 오해와 좌절을 일으킨다. 공감에 대한 비판자들은 우리가 공감을 포기하고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다른 도구들, 예를 들어 이성적 연민이나 두려움, 분노, 수치심 같은 도덕적 감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글의 순서

정답 ①

정답 근거

주어진 글은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우리를 가장 살아 있게 느끼게 한다고 말한다. (A)가 일상을 흔드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고 on those occasions 로 「시간이 느려지고 더 몰입한다」는 그 느낌을 보인다. (C)의 The same holds true 가 (A)의 그 경험을 받아 위험한 경험으로 넓히고 도파민 때문에 「계획된 만남보다 우연한 만남이 더 즐겁다」로 나아가면, (B)가 「좋은 소식 · 선물도 뜻밖일 때 더 즐겁다」로 우연의 즐거움을 넓혀 It's why 로 인기 작품의 반전까지 묶는다 — 주장 → 사건 → 위험 · 우연 → 놀라움 · 정리.

선지 분석

① **정답**

② **지시어 단서** — (B)의 It's why … 는 글을 맺는 정리다 — (B)가 맨 앞이면 정리가 먼저 오고, (C)의 chance encounters(우연한 만남)를 뜻밖의 선물로 넓히는 (C) → (B) 연결도 끊긴다

③ **지시어 단서** — (C)의 The same holds true 는 앞에 「시간이 느려지고 몰입한다」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 그 경험은 (A)에 있어 (C)가 (A)보다 앞설 수 없다

④ **지시어 단서** — (C)가 맨 앞이면 The same 이 가리킬 경험이 없다 — 주어진 글에는 구체적 경험이 없다

⑤ **지시어 단서** — (C)가 맨 앞이면 The same holds true 가 가리킬 경험이 없고, (A)의 사건 예가 정리((B)) 뒤로 밀린다